

Contents

감수의 글 13

프롤로그·16

들어가는 말 18

CHAPTER 1 모험의 기운

예측할 수 없는 결과·32 | 뼈걱거리는 대표팀·33 | 필드 가장자리에서 안으로·35 | 직업적인 위험요소 38 | 계속되는 노이어의 활약·39 | 패스하는 골키퍼·42 | 노이어의 플레이는 혁명·44 | 칭찬과 비난·49

CHAPTER 2 모나코? 부에르-미테!

루르 지역과 윈스터란트 사이·56 | 양극의 도시·58 | 아버지의 멀리 던지기 실력·60 | 두 살, 처음으로 볼을 만나다·61 | 형제 관계·64 | 아멜란트 섬에서의 승리·65 | 폐허 위에서·67 | 개혁가: 보도 멘체·68 | “코치님, 저도 필드에서 뛰게 해주세요”·70 | ‘동산’ 트레이닝·72 | 원석·73

CHAPTER 3 살के 유소년 스쿨

축구 선수 제조기·82 | “골키퍼가 공을 잡는 순간, 경기는 시작된다”·83 | “헬무트, 노이어를 방출해서는 안 돼요”·87 | 특별한 아이·89 | GEBF·93 | 하루에 12시간·95 | 세계 챔피언을 만들어낸 이들·99 | 축구를 즐겨워하는 것·102 | “마누엘은 꿈같이 둔한 데가 있었어요”·105 | 생애 최초의 포칼컵 우승·107

CHAPTER 4 판 데 사르, 레만, 부트: 스위퍼형 골키퍼의 탄생

프랑스 후크의 혁명·113 |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멀리 떨어진 곳·116 | 새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골키퍼·121 | 당황하지 않는 골키퍼·125 | 잘못된 선택·127 | 아스널의 운명적 골키퍼 '미치광이 엔스'·130 | 외르크 부트: 빈 공간으로의 패스·133 | 칸에서 노이어로·136

CHAPTER 5 세계 최고의 골키퍼로 가는 길에 들어서다

두 번의 데뷔·144 | 첫 번째 실수 이후 골키퍼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다·147 | 볼칸 원위의 가슴 아픈 이야기·149 | 노이어, 로스트를 재치다·153 | 아들러 Vs 노이어·157 | 시즌 최고의 골키퍼·159 | 경악스러운 실수·161 | 레만 2.0·167 | 포르투의 밤·170 | 발리우드 영화 처럼·175

CHAPTER 6 독일의 넘버원

국가대표 그리고 U-21 유럽 챔피언·184 | 노이어 Vs 그로스크로이츠·187 | 로베르트 엔케의 죽음·191 | '흰 조끼' 상·193 | 아들러의 부상으로 넘버원이 되다·195 | 미하엘 렌징의 이야기와 외르크 부트의 복귀·198 | 젊고 매력적인 팀·205 | 조화, 신뢰, 존중·207 | 불룸폰테인에 웹블리는 없다·210 |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앞에서도 강한·214

CHAPTER 7 노이어 영입 반대

바이에른과 도르트문트를 혼자 상대하다·223 | 바이에른 새 수문장의 힘·226 | 권력 다툼·228 | 바이에른 울트라 Vs 노이어·230 | 노이어 영입 반대·232 | "노이어만은 건달 수 없습니다"·236 | 이별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·239 | 21세기 골키퍼·243 | 토마스 크라프트의 아웃·248

CHAPTER 8 “저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”

이별과 우승·257 | “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” 259 | 제2의 쿠조라가 될 수 없었던 이유·262 | “노이어는 완벽한 구조의 프로 클럽을 찾았습니다”·265 | “우리는 당신을 살고 있습니다”·267 | 톤과 레만의 이야기·273 | “마누엘에게 축구는 직업입니다”·277 | 구단에 대한 충성심: ‘텔레’ 칸데츠키부터 마누엘 노이어까지·281

CHAPTER 9 다른 세상으로

기계실에서 선데크로 올라가다·288 | “토니가 없으면 안 됩니다”·290 | ‘행동지침’을 받다·294 | 분데스리가에서의 첫 실책·297 | 레만의 비판·300 | “유대”·302 | 자아비판 그리고 강한 정신력·306 | 베르나베우의 영웅·309 | 세 번의 준우승·313 | “노이어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”·317 | 마누스·319

CHAPTER 10 2년 사이에 6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

챔피언스리그·328 | 결승전의 악몽·330 | 웹블리의 유일한 선수, 노이어 333 | 골키퍼, 골을 만든다·335 | 절반의 화해·337 | 3관왕 그리고 최우수 골키퍼·340 | 과르디올라식 축구·342 | “지금까지 이런 선수는 본 적이 없어요”·343 | 노이어, 과르디올라를 구하다·347 | 실점 18점·349 | 바이에른의 청소년부·351 | 알리안츠 아레나에서의 치욕스러운 밤·353 | 2관왕의 위로·355

CHAPTER 11 세계 챔피언

우려스러운 노이어의 어깨 부상·362 | 라이벌 관계를 넘어·365 | 리베로 마누·367 | 노이어의 손·370 | 냉철한 골키퍼·374 | 노이어 Vs 이과인·377 | 아신상 그리고 세계 챔피언·379

CHAPTER 12 골키퍼 그리고 코치

명품 골키퍼·386 | 인간 노이어·389 | 골키퍼와 센터백 그리고 코치·392 | 도르트문트에서의 '노이어 반대'·395 | 승부차기를 앞두고 소변을 보다·396 | 포르투에서의 데자뷰는 없다·400 | 머뭇거리는 순간 골을 내주는 법·402 | 노이어 Vs 테르 슈테겐 405 | 실수 아닌 실수·408 | 올해의 유럽 선수·411

CHAPTER 13 완전한 골키퍼

발롱도르를 둘러싼 찬반 논란·418 | 축구 선수·424 | 자발적으로 플레이에 가담하다·426 | 모험을 즐기다·429 | 강한 정신력의 만능 골키퍼·432 | 볼 수 없는 것·437 | 다른 선수들보다 더 혁신적인 골키퍼·440

마누엘 노이어 프로필·444